

“1차 성추행 신고 문화원서 묵살 2차 성추행 초래” 中이어 北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윤창중 의혹 꼬리... “문화원장, 피해여성 호텔 찾아가 면담”

美 경찰 “윤사건, 현재 경범죄 수준 수사”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의 실체 규명이 늦어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주장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인턴 피해자가 지난 7일(현지시간) 밤 1차 성추행 이후 신고를 했음에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이 이를 무시해 2차 성추행을 초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또 최병구 문화원장이 이 인턴으로부터 2차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나서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아닌 윤 전 대변인과 직접 인턴이 묵고 있던 호텔 방을 찾아가겠다는 설도 나왔다.

14일 이번 사건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미주 한인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인 '미시USA'에는 “문화원 측이 8일 아침 최초 보고를 받았다고 했으나 윤 전 대변인이 말했다던 W호텔 바에서 술을 마시고 호텔에 돌아온 이후 피해자가 문화원 직원에게 성추행 사실을 최초로 알렸지 않았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이 직원은 ‘이번 중차대한 시기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덮으라’는 위압으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마 7일 보고를 받고 나서 8일 아침 조치를 한 것을 두고 보고를 받아마자 바로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알렸다고 할 수는 없을 테고 7일 첫 보고를 받은 게 맞다. 그리고 그때 바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을 바꿀 거냐”고 따졌다.

이 게시자는 “7일 밤 최초 보고도 묵살하고 8일 아침 두 번째 보고도 묵살해 피해자 인턴과 함께 방을 쓰던 문화원 직원이 화를 참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최 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측은 8일 아침 피해 여성의 불만을 접수해 청와대 측에 알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 원장이 8일 오전 인턴의 방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아닌 윤 전 대변인 본인과 이 인턴의 방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원은 윤 전 대변인이 따로 인턴을 찾아가 면담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 원장은 윤 전 대변인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피해 여성은 최 원장이 윤 전 대변인이 다른 선임행정관인 윤 전 대변인과 함께 방을 쓰던 문화원 직원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윤 전 대변인이 델레스 공항으로 갈 때 문화원이 차편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문화원은 그러나 청와대 요청으로 윤 전 대변인의 여권을 건네주기는 했지만 그에게 차관 편의까지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워싱턴DC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의 수사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중범죄’(felony) 수준으로 수사될 것이라는 일부 관측과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경범죄’(misdemeanor) 형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연합뉴스

“윤창중사건 매듭짓고 경제민주화 쟁겨야”

민주 김한길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5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태와 관련, “빨리 매듭짓고 경제민주화를 쟁겨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청와대 기능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다. 이런 청문회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 못 했다는 게 나라로서 큰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사과한 데 대해서도 “불통인사, 오기인사가 불러온 나라 망신에 대해 사과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외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진실규명과 사건의 전모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는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인사 파일이 잘 정리돼 있어야 하는데 마땅한 게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때문에 (공직에 나가기)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잘 고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JCI아태대회 성공개최 다짐

오는 6월13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청년회의소(JCI)아태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15일 서구 여성발전센터에서 강은태 시장과 정원주 집행위원장 등 300여명이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윤창중 성추행 의혹’ 국내 수사 가능성 제기

법조계 일각... 靑 “곧 직권면직 처리”

‘윤창중 성추행 의혹’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국내 사법당국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으로 자진출국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가 거처야 하는 등 미국 경찰의 수사가 장기화하고 그만큼 이번 사건의 진상 등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제적 망신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5일 “윤 전 대변인이 자진해서 미국으로 가서 현지 경찰의 수사에 응하면 좋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애매하다”며 “이번 국제적 망신 사태를 잠재우려면 국내에서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일단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벌어진 성추행 혐의에 대한 국내 수사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현행법상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피해자가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법조계 일부의 견해다. 한편, 청와대는 윤 전 대변인을 곧 직권면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지난 10일 보직대기 발령을 내렸다”면서 “현재 행정 절차법에 의해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어 곧 면직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연합뉴스

오리 16만마리 살처분

IIE, 요청맨 전문가 파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북한과 중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북한은 평양 인근의 두단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해 오리 16만4000마리를 살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OIE는 북한에서 방사해 기르는 오리 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철새와 접촉해 AI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티베트사치구의 닭과 거위 35마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돼 폐사했다.

중국 정부는 발생지 인근의 닭과 거위 372마리를 살처분하고 방역대 설정·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했으나 발생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

다고 OIE는 전했다.

농식물부 관계자는 “북한 접경지역인 파주 탄현지구와 임진강 일대 철새도래지를 집중 관리하고 지자체에 방역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OIE는 북한에 대한 실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베르나르 발라 OIE 사무총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과 접촉 중이며 공식적인 지원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수일 안으로 현지에서 전문가들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발라 총장은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에서 유행 중인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가 북한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류 수출입과 관련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근로정신대 피해 지원 조례 제정

전남도의회, 임시회 상정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오는 21일 개최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무소속 정정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20여 명이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정신대 피해

자에게 생활보조비로 1인당 월 30만원 지급하고, 병원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로 판정돼 1년 이상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조례를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은 전국적으로 16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남에는 6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오광희기자kroh@kwangju.co.kr

전남도, 정주여건 개선 3600억 투자

식수원 확보·생활용수 사업 등

전남도는 내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공특회계) 예산 3608억원을 도민 생활과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의 3551억원보다 57억원(1.6%) 늘어난 액수다. 이 예산 중 생 등 낙후지역도 절차법에 의해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어 곧 면직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연합뉴스

또 태풍 내습 때 소형 어선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인양기를 149곳에 설치하고 안전한 선박 접안 때 필요한 부잔교도 101곳에 추가 시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도 사업비를 집중해 투입할 계획이다. /오광희기자kroh@kwangju.co.kr

삼희공인중개사

모든부동산 급매매

급매처분상담

경매 압류

미준공건물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234-1199 /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신한공인중개사

신축 원룸 매매 전문

- ★북구 전대 상대·동대 1분, 신축 4층, 룠,147계(주택있음) 월수익 500만, 매가 5억 9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북구 전대 정문 1분, 신축 4층, 룠 167계 (주택 40평)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4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북구 전대 정문 1분, 신축 4층, 룠 217계 (주택전환)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8천만 (엘리베이터,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 ★서구 쌍촌동 운현역 2분, 신축 3층, 룠 87계(주택있음) 월수익 280만, 매가 5억 2천만 (보 2천, 용 1억 2천)
- ★서구 쌍촌동 신축 4층, 원·투룸 147계 (주택있음) 매가 6억 9천만
- ★북구 삼각동 신축 4층, 원·투룸 117계 (주택있음) 코너, 최고 위치 월수익 330만, (보 2500만, 용 1억 2천) 매가16억5천만

상가매매

- ☆상가 임대 1층, 수원지구, 대방 5차 후문 59㎡ (보3천,월130만) 모든업종가능
- ☆상가 임대 3층, 수원지구, 모이엘가APT 150㎡ (보 1천, 월 90만) 즉시입주, 시바없음
-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롯데마트, 영화관 300세대 대방 5차 APT 후문 59㎡ 매가 3억 6천, 임대중 (보 3천, 월 150만)
- ☆상가 매매 1층, 수원지구 신현은행 뒤 300세대, 모이엘가 APT 후문 3층 280㎡ 매가 3억 2천 (보 2천만, 월 200만, 용 2억 5천만) 학원, 병원, 사무실적합
- ☆상가매매 1층 4칸, 수원지구 대방 1차 APT정문 대지 304㎡ 매가 6억 3천 (보 8천만, 월 360만, 용 2억 5천만)
-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대성베르힐 대지 304㎡ 매가 7억 (보 1억 3천만, 용 4억)

독서실 임대

수원지구 3천세대 모이엘가APT앞 2층, 총 91석 신축,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 (보 5천만, 월 250만, 시바약간있음)

☎062)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수완동(국민은행 LG전자빌)

현대공인중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내 신속중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 재 지 : 광산구 산정동
- 면 적 :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
- 지 목 : 잡종지
- 입지조건 : 대형차량진입 가능
- 허용용도 : 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차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 근로)

●매매조건: 면적(분할가능) 및 가격은 상담 후 결정

〈신축 상가 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 광주 동구 구영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 관광 용도 : 학원, 병의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명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중심상권 2층건물 매매 18억(보1.5억 월910만 수익)
- ▷월산동 일반상업지역 6층건물 매 14.7억
- ▷중앙동 아파트 2층상가 124㎡(38평) 매매 2.4억

대지/전답

- ▷담양군 금성면 토지 5,500㎡(1,670평) 개발허가,기반 시설 완비
-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 ▷신창동 창고용지(생산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 ▷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수익형 구분점포

- ▷첨단 메인대로면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 ▷첨단 중심대로면 복층 가능 1.2층 점포 400㎡, 710㎡ 임대
- ▷첨단 중심대로면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10억 월 1,200만
- ▷첨단 메인상권 1층 구분상가 370㎡ 매매 35억(임대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전 매도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73-0045 010-5536-0382

중앙공인중개사

♣.병원건물 임대

- ☆.운암동 아파트 밀집지역 (금호, 주공3단지,미라보 남양휴먼 우미 일신아파트 등 약 5,500세대) 병,의원 개원 하실분 모십니다. (0비인후과 소아과 안과)
- ♣.대지,전,답
-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점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매매가 평당150만원 (물류창고 공장 적합)
- ♣.전원주택
-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한재골 입구 저수지 위 전망 아주 좋은 대지 1,333㎡(약403평) 매매가 평당 65만원

충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 하신 분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억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5층) 보3억, 월2500만원 매39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3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5층) 보5억, 월4100만원 매80억원
- ★광안구 수완지구(5층) 보2억2천, 월1390만 매27억원
- ★광안구 신창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대지/답

- 금호동 계획도점 자연녹지 3,400㎡ 매31억원 (병원,시육,장례의식장)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사무)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408㎡ 매 8억5천(식당,유족노래방)
- 차평동 광산대로 395㎡ 매14억원(병원,시육,전시장)
- 마복동생산녹지 도로점 895㎡ 매가11억원(식당,사무)
- 쌍촌동 운현역부근 상업지 845㎡ 매2억5천 (사무,전시장,병원,도식)
- 세종시 중심상업지 1715㎡ 매가162억원(상업투자준비)
- 상가건물, 나대지 급구

☎062-381-6001
010-3753-0033